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Hye-Jeong Yoon*, Kyung-Rye Moon**

*Student,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Medical Scienc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et up three types of variables: 1) independent variable, 2) moderating variable, 3) dependent variable. Job stress was identified as an independent variable,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was identified as a moderating variable and psychological burnout was identified as a dependent variable. To empirically conduct this study, a total of 2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physical therapists. Consequently, a total of 155 survey responses were collected.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showed a high-level of correlation among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Secon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hysical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Thir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 **Key words:** Physical therapist, Job-stress, Burnout, Self-efficacy, Social support, Moderated effect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의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데에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인으로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절변수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는 심리적 소진을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변인 간의 효과 및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최종 155부를 실증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제어:** 물리치료사, 직무스트레스, 소진,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조절효과

-
- First Author: Hye-Jeong Yoon, Corresponding Author: Kyung-Rye Moon
*Hye-Jeong Yoon (yhj6677@naver.com), Graduate School of Alterna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 **Kyung-Rye Moon (krmoon@chosun.ac.kr), Dept. of Medical Scienc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0. 07. 20, Revised: 2020. 08. 10, Accepted: 2020. 08. 10.

I. Introduction

소진이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받는 심리적 압박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야 하는 사회사업 및 의료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여지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1]. 사회사업 및 의료사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인 심리적 소진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대면 서비스 직종에서 수십여 년 이상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2].

이런 추세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72회 총회에서 번아웃(Burnout)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제11차 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포함시켜 2022년부터 WHO 회원국인 194개 국가에서 도입된다[3].

한편, 물리치료가 대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치료를 위해서 병원의 여러 의료팀들과 함께 협력하여 환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태를 위해 끊임 없이 상호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어진 업무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치료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라 할 수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상담, 평가, 및 치료 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업무의 과중, 대인간의 스트레스, 낮은 보수 등은 이들로 하여금 소진을 경험케 하고 있다[4].

근래에 들어 물리치료사의 심리적 소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단계에 있으며, 심리적 소진에서의 간접영향요인과 보호요인들도 논의되고 있다. 김승찬과 서호찬[5]은 그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고, 노효련과 강종수[6]는 물리치료사의 조직 내의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은 환자들의 성공적 사회 복귀를 위해서 조직 내의 다양한 인력들, 다양한 환자 및 업무와의 접촉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은 예상된 문제였으나 그에 반해 이들의 심리적 소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물리치료사의 심리적 물리적 환경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의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심리적 소진 등 네 가지 변인이 상관관계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셋째,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II. Preliminaries

1. Job Stress

한국산업안전공단(2003)에서는 직무스트레스를 조직 내에서 직무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스트레스로 주어진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등과 맞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로 정의[7]하고 있으며,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차원과 주어진 환경의 차원이 일치하지 못하는 상황, 즉 개인이 직무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업무환경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 또는 개인의 업무능력을 초월하는 직무가 주어질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8].

이와 같이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노효련[1]은 물리치료사들은 신체적인 직무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느낀다고 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구현모와 이인희(2010)는 물리치료사의 업무스트레스와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한 연구결과로 업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은 떨어졌으며, 업무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의 발전과 의료의 발전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만큼 급여, 업무스트레스로부터 받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대한 주관적인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개발된다면 치료사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9].

2. Burnout

'소진'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심리학자인 Freudenberger가 1974년 심리학 저널에서 '스태프들의 번아웃(staff burnout)' 논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언급된 이후 소진은 여러 학자에 의해 연구가 계속되면서 개념과 연구영역은 점차 확장되었다. 이런 연구에서는 소진을 신체적 고갈 및 감정적 고갈,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을 한, 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고객에 대한 무관심한 상태로 정의하였다[10]. 이후 소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에는 Maslach과 Jackson에 의해 개발된 Maslach Burnout Inventory (MBI)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김은중(2020)은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소진과 직접적인 정(+)의 영향 관계에 있

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12], 노희규와 박혜진(2008)은 물리치료사의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상대로 분석한 결과 소진의 하위요인은 비인간화, 정서적 탈진, 성취감 결여 순이었으며, 개인의 특성, 직무특성, 조직특성에서 모두 소진의 영향 정도는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소진의 현상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일종이므로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 가능한 개인의 긍정적이며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이며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진척도를 이용한 주기적 소진 점검이 협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3].

3. Self-efficacy

Bandura[14]는 그의 저서에서 자기효능감이란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일정한 수준에서 인지되어지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학습 및 업무성과를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의 보호요인의 하나로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자기효능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주어진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자신감 또는 행동의 변화를 중재하는 요인으로, 임진형의 연구[15]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무스트레스가 낮으며 이들은 지속적 노력을 통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 Social Support

사회적 지지는 한 개인이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의 요소로 개인이 처한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적용되고 있다[13].

1970년대 이후 스트레스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건강의 위험인자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정신 건강 수준이나 질병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Dean과 Lin,1977; Lin & Ensel,1989). [16].

사회적 지지에 대해 김창희[17]는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소진 역시 함께 증가하며, 이 때 사회적지지가 증가하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송유신[18]은 그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중 가족의지지, 친구의지지,

친구지지의 상호작용 효과가 높은 사람일수록 심리적 소진에 덜 노출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물리치료사가 업무환경의 위험요소에 처했다하더라도 상사의 지지나 가족, 동료들을 통해 기술적인 원조나 정서적 긴장과 갈등완화 등의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압박은 완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물리치료사는 재활에 대한 전문적인 및 태도 외에도 의료기관 내의 의료진과의 긴밀한 관계유지, 환자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인간과 치료에 대한 이해 능력이 요구된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의 노력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금 및 보상 등의 불합리함에 의해 더 많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심리적 소진, 사회적 지지는 상관계수에 있을 것이다.

가설2.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3.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III. Research Design

1.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J도의 물리치료사를 대상으로 편의 표집하였고, 설문지는 2020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직접방문, 온라인 등을 통해 배포 및 수집하였다. 배포된 200부 중 161부가 회수 되었고, 응답 값 누락 등의 불성실한 6부를 제외하고 총 155부가 실증 분석에 사용되었다.

물리치료사의 연령대는 20-29세미만은 25명(16.1%), 30-39세미만은 52명(33.5%), 40-49세미만은 39명(25.2%), 50-59세미만은 32명(20.6%)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남성은 91명(58.7%), 여성은 64명(41.3%)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은 105명(67.7%), 미혼이 48명(31.0%)로 나타났다. 부양가족은 없는 경우가 54명(34.8%), 1명이상이 101명(65.2%)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졸이 95명(61.3%), 4년대졸은 50명(32.3%)로 나타났다. 월소득은 200-300만원미만은 109명(70.3%), 300-400만원미만은 35명(22.6%)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Subject of Study

		Frequency	%
age	20-29under	25	16.1
	30-39under	52	33.5
	40-49under	39	25.2
	50-59under	32	20.6
	60over	7	4.5
gender	Man	91	58.7
	Woman	64	41.3
marriage	Married	105	67.7
	Unmarried	48	31.0
	The others	2	1.3
dependent	0	54	34.8
	1	27	17.4
	2	45	29.0
	3	19	12.3
	4over	10	6.5
level of education	Grad.fr.Coll.	95	61.3
	Grad.fr.Uni.	50	32.3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8	5.2
	The others	2	1.3
monthly income (won)	100-200under	7	4.5
	200-300under	109	70.3
	300-400under	35	22.6
	400-500under	2	1.3
	500over	2	1.3
total		155	100.0

Table 2. Questionnaire Configuration & Reliability

variable (total questions)	composition of question (total questions)	source	reliability
Job Stress (17)	job factors(6) working environment (3) professional development (4) interpersonal relationship (4)	Mi-Yok, Ku (1984)	.890
Psychological Burnout (22)	emotional exhaustion(9) personal fulfilment(8) dehumanizing(5)	Sam, Lee (2012)	.935
Self-efficacy (12)	self-confidence(3) self-control efficacy(5) task difficulty(4)	Kyung-Sook, Kim (2015)	.917
Social Support (16)	emotional support(7) evaluative support(3) informational support(6)	Soon-Ae, Sim (2007)	.979

본 문항의 측정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뢰도 검사인 Cronbach 알파검증에서는 보통 연구에서 0.6이상이면 문항의 신뢰

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직무스트레스 0.890, 심리적 소진 0.935, 자기효능감 0.917, 그리고 사회적지지 0.979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2. Research Model

앞선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설정된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다음 Fig. 1과 같다.

연구모형을 살펴보면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조절 변수는 각각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 종속변수는 심리적 소진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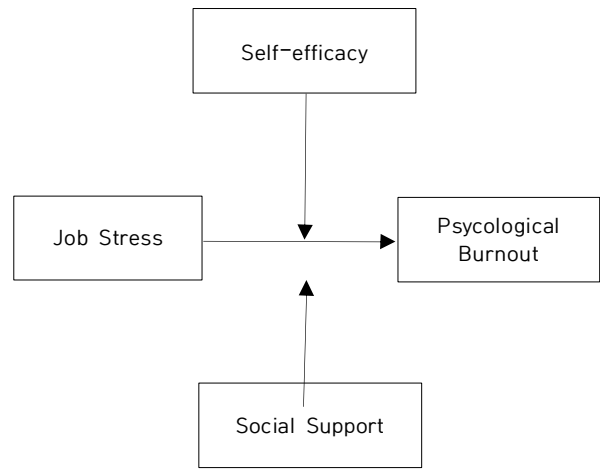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IV. Results

1. 1st Rhyphotesis Testing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변수 간 연관성을 파악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또한 기술 통계량으로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

	Job Stress	Psychological Burnout	Self efficacy	Social Support
Job Stress	1			
Psychological Burnout	.236**	1		
Self efficacy	.474**	.185*	1	
Social Support	.421**	.172*	.892**	1
mean	2.67	2.74	3.00	3.02
standard deviation	0.46	0.57	0.63	0.72

직무스트레스는 심리적 소진($r=.236, p<.01$)과 정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자기효능감($r=.474, p<.01$) 사회적 지지($r=.421, p<.01$)와도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심리적 소진은 자기효능감($r=.185, p<.01$)과 사회적 지지($r=.172, p<.01$)와 약한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반면에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r=.892, p<.01$)간 강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모든 연구변수 간 상관성은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설1.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2. 2nd Rhypothesis Testing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2.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2단계에는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평균 중심화하여 공선성 위험을 줄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VIF 는 10 이하(1.261-1.805)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심화된 조절변수의 평균에서 부터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인 3가지 그래프를 제시하여 조절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조절효과 3단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독립변수가 투입된 1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beta=.237, p<.05$)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둘 다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자기효능감 상호작용($\beta=-.380,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력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Delta R^2=.113, p<.00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설2.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채택되었다.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Step 1			
	B	β	t
constant term	2.507		7.046***
age	.020	.039	.337
gender	-.031	-.026	-.312
level of education	.319	.271	2.851**
dependant	-.038	-.083	-.554
marriage	.011	.009	.081
monthly income	-.062	-.067	-.464
job stress	.294	.237	2.415*
self-efficacy			
job stress* self-efficacy			
$R^2=.115, F=2.728, p<.05$			

Step 2			Step 3		
B	β	t	B	β	t
2.645		7.159***	2.236		6.264***
-.009	-.018	-.149	.002	.003	.029
-.074	-.064	-.718	-.109	-.094	-1.130
.305	.258	2.713**	.251	.213	2.374*
-.023	-.050	-.328	.020	.044	.307
.015	.012	.109	.206	.169	1.528
-.071	-.076	-.530	.013	.014	.106
.236	.190	1.826	.288	.232	2.375*
.122	.135	1.339	.058	.064	.673
			-.297	-.380	-4.640***
$R^2=.126, F=2.623, p<.05$ $\Delta R^2=.011, p>.05$			$R^2=.191, F=5.052, p<.001$ $\Delta R^2=.113, p<.001$		

* $p<.05, p^{***}<.01, p^{**}<.001$

그래프를 통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해 볼 때 모든 조절 효과 수준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심리적 소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효능감 +1 표준편차인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때 심리적 소진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효능감 -1 표준편차인 집단의 효과보다 더 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완

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자기효능감은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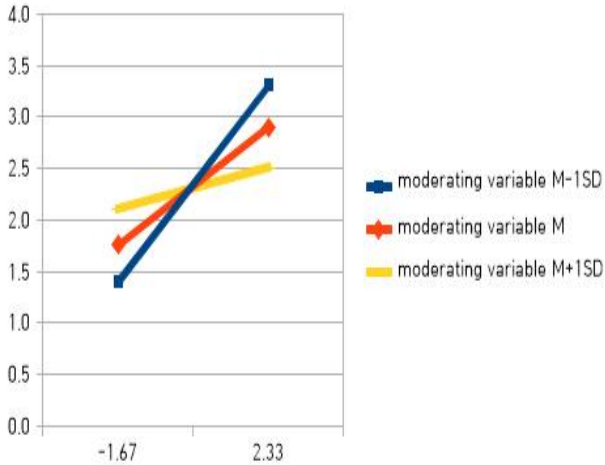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3. 3rd Rhyphotesis Testing

본 연구의 가설3.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단계에서 인구학적 변수를 통제변수로 하여 투입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직무스트레스를 투입하여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고, 2단계에는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 변수간의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평균 중심화하여 공선성 위험을 줄였으며 모든 분석에서 VIF 는 10 이하(1.261-1.805)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한 이후에 그래프를 통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중심화된 조절변수의 평균에서 부터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인 3가지 그래프를 제시하여 조절변수인 사회적지지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조절효과 3단계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Step 1			
constant term	B	β	t
age	2.507		7.046***
gender	.020	.039	.337
level of education	-.031	-.026	-.312
dependant	.319	.271	2.851**
marriage	-.038	-.083	-.554
monthly income	.011	.009	.081
job stress	-.062	-.067	-.464
social support	.294	.237	2.415*
job stress* social support			
R ² =.115, F=2.728, p<0.05			

Step 2			Step 3		
B	β	t	B	β	t
2.617		7.236***	2.223		6.306***
-.009	-.017	-.141	.001	.002	.019
-.073	-.063	-.716	-.117	-.101	-1.214
.321	.272	2.877**	.277	.234	2.618*
-.016	-.035	-.231	.023	.050	.345
.017	.014	.127	.211	.173	1.548
-.079	-.085	-.589	.002	.002	.016
.237	.191	1.861	.259	.209	2.159*
.114	.143	1.511	.083	.105	1.166
			-.281	-.359	-4.393**
R ² =.129, F=2.639, p<0.05 ΔR ² =.014, ,p>0.05			R ² =.231, F=4.838, p<0.001 ΔR ² =.102, p<0.001		

*p<.05, **p<.01, ***p<.001

위의 Table 5와 같이 독립변수가 투입된 1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β=.237, p<0.05)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조절변수가 투입된 2단계에서는 둘 다 유의하지 않았다.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직무스트레스*사회적지지 상호작용(β=-.359, p<0.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력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ΔR²=.102, p<0.001).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 간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가설 3.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는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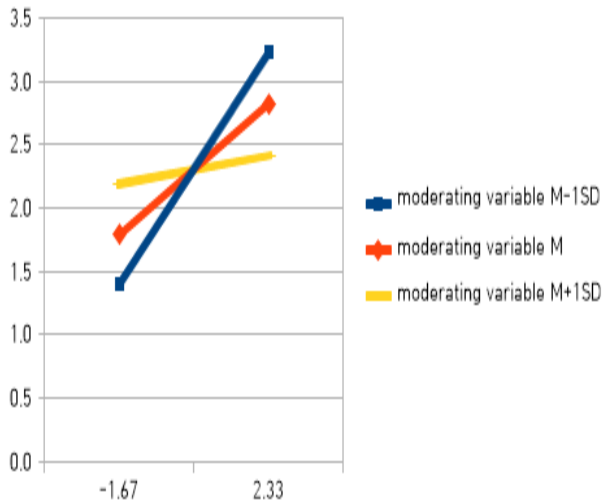


Fig. 3.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그래프를 통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해 볼 때 모든 조절 효과 수준에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심리적 소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 +1 표준편차인 집단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심리적 소진 증가에 미치는 효과가 사회적 지지 -1 표준편차인 집단의 효과보다 더 약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은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사회적 지지는 직무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상승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설1.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 심리적 소진, 자기효능감,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둘째, 가설2.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3. 물리치료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위와 같은 결과로 자기효능감요인인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난이도 선호와 사회적지지요인인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등이 물리치료사를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요인 외에도 물리치료사들을 심리적 소진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인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실증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 from Chosun University Hospital 2017.

REFERENCES

- [1] Hyo-Lyun Ro,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Self-esteem of Physical Therapists", *Journal of Korea Society Physical Therapy.*, Vol.22, No.1, February, pp.83-90, 2010.
- [2] Seung-Jae, Kim, and Ho-Chan, Seo,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Burnout of Ego-Resilience of Physical Therapis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November, pp.563-576, 2019, DOI:10.35873/ajmahs.2019.9.11.051
- [3] DongA-Ilbo, <http://www.dona.com/news/View?gid=95736344&date=20190528>
- [4] Bu-Am, Chu, "Study about Burnout Experience of Physical Therapists on Therapy Stroke Patients", *Graduate School of Yong-In University Ph.D's degree*, pp.1-2, 2012.
- [5] Seung-Jae, Kim, and Ho-Chan, Seo, "Mediating Effects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Factors Affecting Psychological Burnout of Ego-Resilience of Physical Therapis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November, pp.563-576, 2019, DOI:10.35873/ajmahs.2019.9.11.051
- [6] Hyo-Lyun, Ro, and Jong-Soo, Kang, "Affects of Social Capital in Medical Institutions on Physical Therapists' Burnout",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1, pp. 417-429, 2014, UCI : G704-000930.2014.16.1.026.
- [7] www.kosha.or.kr
- [8] Kyoung-Jin, Ha,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f Physical Therapist on Job Satisfac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Master's degree*, p.24,

2015.

- [9] Hyun-Mo, Ku, and In-Hee, Y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jective Quality of Life and Job Stress among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Physical Therapy*, Vol.22 No.,2, February, pp.69 - 75, 2010.
- [10] Eun-Joon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Resilience, and Burnout Perceived by a Physical Therapist",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Master's degree*, pp.30-32, 2020.
- [11] Hee-Jeong, Kim, Min-Jung Park, Hye-Jin Byun, Une-Ja Shin, and Yeo-Ju Chung, "The 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rt Therapist's Job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6, June, pp.73-87, 2018, DOI: [dx.doi.org/10.5392/JKCA.2018.18.06.073](https://doi.org/10.5392/JKCA.2018.18.06.073),
- [12] Eun-Joong,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Resilience, and Burnout Perceived by a Physical Therapist",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Master's degree*, pp.52-54, 2020.
- [13] Hee-Kyu, No, and Hye-Jeon, Park, "A Study on the Burnout of Physical Therapist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Vol.51, No.1, February, pp. 117-145, 2008. DOI : [10.20971/kcpmd.2008.51.1.117](https://doi.org/10.20971/kcpmd.2008.51.1.117)
- [14] Bandura, A., *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1997
- [15] Jae-Woo, Park, "Job-stress,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f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in Nursing and Rehabilitation Hospitals", *Graduate School of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pp.16-17, 2019.
- [16] Seung-Jae, Kim,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Therapists' Self-Resilience and Burnout",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Ph.D's degree*, pp. 14-16, 2014.
- [17] Chang-Hui, Kim., " The Effect of Job Stress on Burnout of Elementary Care Specialists: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of Gachon University Master's Degree*, pp.1-3, 2019.
- [18] You-Shin, Song.,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of 119 Ambulance Workers",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Master's Degree*, pp.62-64, 2016.

Authors



Hye-Jeong Yoon received the B.S. and M.S. degrees in physical therapy from Hanlyo University, Korea, in 2003 and 2005 , respectively. She complete Ph.D. course in alternative medicine from Chosun University

in 2020. She is interested in physical therapy, and health care field.



Kyung-Rye Moon received the B.S., M.S. degrees in Medicine from Chosun University in 1982, 1985 and Ph.D. from Chonnam University in 1997, Korea, respectively. Dr. Moon joined the faculty of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Medical College at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in 1989. He is currently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ediatrics Medical College at Chosun University. He is interested in pediatric gastroenerology, and nutrition, and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